

## [1신] 뚝다. 금속노조 ‘함께 살자’ 전국 순회투쟁단

2주 동안 전국 26곳 사업장 돌며 투쟁...재난에 묻힌 “구조조정·노동탄압 분쇄”, 현장서 외친다

금속노조가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며 투쟁을 벌인다. 해고와 구조조정, 금속노조 탄압을 겪는 지역과 사업장을 찾아 함께 싸운다. 정부와 자본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노동조합 요구를 알린다.

금속노조는 7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함께 살자. 2020 투쟁승리. 전국순회투쟁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7월 14일부터 17일, 20일부터 23일 까지 2주에 걸쳐 여드레 동안 순회투쟁단을 운영한다.

김용화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투쟁단장 발언에서 “코로나 19를 빌미로 구조조정과 노동조건 후퇴를 시도하는 사용자가 많다”라며 “방역을 이유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조합 활동을 가로막아 현장 소식을 알리는 일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순회투쟁 기획 배경을 알렸다.

김용화 순회투쟁단장은 “IMF 외환위기 때 확인했듯이 노동자를 쥐어짜 기업 살리는 방식은 틀렸다”라고 단언했다. 김용화 단장은 “기업 이윤을 지키고 늘리는데 노동자 고통과 희생을 당연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낡은 노동정책을 확 갈아엎자”라고 강조했다.

김용화 투쟁단장은 “금속노조 사업장에 구조조정, 해외자본 철수, 폐업, 노조파괴 등이 터지고 있다”라며 “상황은 고통스럽고 엄중하지만, 2주 동안 제대로 힘주고 힘 받는 즐겁고 힘찬 투쟁 만들겠다”라고 결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노조 현대차·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현대차·기아차 여섯 개 공장 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사용자 처벌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7월 13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김현제 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울산)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극복 운운하며 기업에 돈을 쏟아붓는데, 노동자는 악 소리도 못 낸 채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다”라며 “일관되게 차별의 불법 파견 범죄를 두둔하는 정부 탓에 현대차·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금속노조 전국순회투쟁을 시작하는 이곳 서울노동청에 천막 농성을 차렸다”라고 설명했다.

### “노동자 권리는 노동자 투쟁으로 쟁취”

김현제 지회장은 “불법 파견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소식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라며 “이번 금속노조 순회투쟁을 통해 노동자 권리를 현장 투쟁으로, 우리 스스로 쟁취하는 조직 풍토와 조직문화를 만들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노조 순회투쟁에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청년·학생 당원, 청년가치팩토리가 동참한다.

전국학생행진의 고도현 씨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19 위기로 학생들도 많은 문제에 직면했다. 학교 밖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 보인다. 노동문제가 특히 그렇다”라며 “피하지 않고 직접 부딪혀 투쟁하는 금속노조를 지지한다. 미래 노동자로서 적극적으로 노동자 권리를 외치겠다”라고 말했다.

노조 순회투쟁단은 STX조선·한국산연·서연씨엔에프 등 전국

26개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간담회와 선전전을 진행한다. 7월 14일 경남 사천 항공탄지를 시작으로 1주 차에 15일 경남 창원, 16일 울산·경북 포항, 17일 경북 구미 순서로 돈다. 2주 차에 20일 광주, 21일 충남 아산·경기 평택, 22일 경기 수원·인천을 찾은 예정이다.

투쟁단은 구조조정 저지 투쟁현장과 중대 재해 다발 사업장을 찾아 지역 노동자들과 함께 결의대회와 투쟁문화제를 연다. 15일 창원 S&T중공업과 현대위아, 16일 울산 고강알루미늄과 현대자동차, 21일 평택 현대위아, 22일 인천 한국지엠 앞 집회가 잡혀있다. 15일 울산 현대중공업 앞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투쟁문화제’와 16일 포항 포스코 앞 ‘중대 재해 규탄 저녁문화제’를 마련했다.

금속노조 투쟁단은 문재인 정부 ‘친기업’ 노동정책 규탄과 재벌 대기업 불법파견 중단 촉구로 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순회투쟁단은 2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 ‘불법파견 철폐. 대법판결 10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와 노숙투쟁에 이어, 23일 대법원 앞 ‘불법파견 대법원 조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으로 여드레 동안의 전국 순회투쟁을 마친다.

## [2신] 사천 항공 산단을 가다

항공 부품 수주 중단에 코로나 19까지 덮친 사천...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급한데 정부는 미적미적

금속노조 순회투쟁단이 7월 14일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경남 사천에 있는 항공산업 단지였다.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항공 산단의 노동자들은 지난해 연이은 보잉737 맥스의 추락 사고 여파로 주문량이 크게 줄어든 터에 코로나 19 사태까지 맞았다.

코로나 19로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항공 회사들은 운행을 사실상 중단했고, 여파는 항공기 부품제조업체들을 강타했다. 금속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항공부품 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해 제조산업과 노동자 삶을 보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금속노조가 노동자 운명 갈랐다”

금속노조 ‘함께 살자 2020 투쟁 승리 전국 순회 투쟁단’은 7월 1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출발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남 사천으로 향했다.

사천 항공 산단에 금속노조 경남지부 소속 여섯 개 사업장이 있다. 경남지부 사천지역지회 소속 지에이산업분회와 한국항공서비스분회를 비롯해 EEWKOREA 지회, 샘코지회, 아스트지회, 부성지회 등 7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조합원이다.

노조 투쟁단은 순회 투쟁 첫 일정으로 경남 사천 항공산업 단지 조합원들과 함께 수석 5리 네거리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구하는 공동 선전전을 벌였다.

이날 공동 선전전에서 항공산단 조합원들은 “금속노조가 사천 항공산단 노동자들의 운명을 갈랐다”라고 입을 모았다.



안용우 노조 경남지부 샘코지회장은 “금속노조가 있는 여섯 개 사업장은 그나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버티고 있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 노동자들은 강제 무급휴직과 권고사직 등을 당하며 공장 밖으로 쫓겨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안용우 지회장은 “지난 일 년 동안 대표이사가 세 번이나 바뀌고,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 만약 금속노조가 없었다면 벌써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을 당했을 것이다”라며 “사천지역 노동자들은 모두 금속노조에 가입해 항공산업을 정상화하자”라고 호소했다.

김갑열 한국항공서비스분회장은 “항공부품산업은 정부 기간산업안정지원기금에 포함됐지만, 실제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김갑열 분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 원의 기금을 만들었지만, 300인 이상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중소기업이 많은 사천 항공산단 공장들은 중요한 미래산업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토로했다.

노조 순회 투쟁에 함께 하는 전국학생행진의 이준서 청년학생 동지는 연대 발언을 통해 “코로나 19 등으로 항공부품산업 정상화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이를 핑계로 노동자를 해고하면 안

된다”라며 “각 공장의 노동자들이 떨어져 싸우면 정리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 모두 금속노조로 뭉쳐 정리해고를 막아내자”라고 강조했다.

### 항공제조업 붕괴는 사천 지역경제 파탄,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 시급

현재 노조 경남지부 아스트지회 노동자 90%가 휴직에 들어갔다. 다른 업체도 비슷한 상황이다. 수십 개가 넘는 하청업체가 유급 또는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원청 격인 한국우주항공의 출연금으로 최저임금을 겨우 받는 수준에서 버티고 있다.

7월 9일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자동차, 조선, 기계, 석유화학, 정유철강 등과 함께 항공제조업을 ‘기간산업안정 기금 지원대상 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하지만 중소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이 사천 항공산단 업체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항공 산단 노동자들은 그래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항공 부품제조업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원업종에 포함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조건이 완화되고, 고용과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장과 무급휴직 신속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사천시 GDP는 4조 2천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3조 2천억 원이 항공부품업계에서 나왔다. 사천 항공부품 산업 붕괴는 사천시 경제 파탄을 뜻한다. 항공제조업 위기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시급하다.